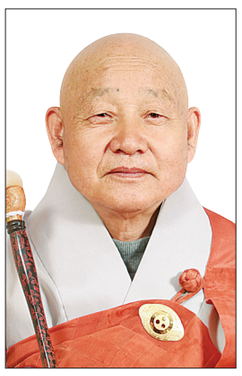
세존 오시니 만물이 찬탄하네

중봉 성파 대종사
조계종 종정



三十相中八十輪
一身無盡現千身
圓音落落遍天地
廣濟塵塵刹土人

삼십이상 팔십종호
한 몸으로 끝없이 천의 몸 나투시고
우렁찬 원음 천지에 두루 펼쳐
온 누리 중생 널리 구제하셨네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인 사바세계에 오심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요,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본래 구족한 여래의 지혜덕상을 모두가 깨닫고 그 지혜덕상을 활용하여 모두가 부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참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가르침은 대립과 갈등을 화합으로 치유하고, 폭력과 전쟁은 평화로 이끄셨으며, 무명번뇌(無明煩惱)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셨습니다.

삼독심(三毒心)으로 키우는 법계(法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삼학(三學)을 통해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원만하고 장엄한 우리의 본성(本性)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해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이라는 말씀으로 밝히셨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라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본성 가운데 여래의 지혜덕상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모두는 본래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천지 만물이 노래하고 춤추며 찬탄합니다. 〈하략〉

이웃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길

영산 홍파 대종사
관음종 종정



山色無非淸淨身
산 빛은 그대로 청정한 부처의 몸이요.
溪聲便是廣長舌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이로다.
百年夢幻何須說
백 년 꿈같은 세상 무엇을 더 말하리오.
一笑春風滿面花
한 번 웃으니 봄바람에 꽃이 만발하도다.

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아 등불 하나를 밝히니, 그 빛이 사바세계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 마음을 참으로 맑고 고결하게 비춥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평안을 찾고 행복을 구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달이 드러나듯, 내 안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 결국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보듬었느냐' 하는 자비의 향기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인드라망의 그물과 같습니다.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법입니다. 부디 이웃을 부처님 대하듯 공경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한 번 더 웃어주고, 힘겨워하는 이에게 따뜻한 손 한 번 건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길입니다.

소외 이웃 위해 자비 등불 밝히길

도용 대종사
천태종 종정



거룩한 부처님을 찬탄하며 귀의합니다.

오백대원 세우시어 중생을 건지시니 한결같은 자비심은 만 생명의 어버이라 전도몽상 무명 장야 꿈속에서 헤매이는 중생위해 사바세계 나투셨어라.

중생을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함이 부처님을 공양하는 길이며 자비로운 손길 부드러운 말 한마디 진실한 마음, 불심으로 살아가면 곳곳에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 부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 마음이 일체중생에게 깃들어 있어 중생이 있는 곳이 부처님 계신 곳이라.

진실한 참마음, 지혜로써 관조하면 허망한 중생의 세계가 빛나는 청정국토로 장엄하게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평화와 국운융창을 일심으로 발원하며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우리 곁으로 오신 부처님을 맞이합시다.

서로 다름 인정하는 만다라 세상 이루길

덕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부처님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고, 고통 속에 길로 오셨으며, 헤매는 중생들에게 참된 삶의 방향을 밝혀 주셨습니다.

사바세계의 짙은 어둠을 뚫고 대자대비의 광명으로 오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듯, 오늘 우리가 밝힌 연등은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진 불심인(佛心印)을 깨우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육자의 보배 구슬이 사바의 어둠을 가르고 자성(自性)의 등불로 밝았습니다. 〈중략〉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눈물을 멈추어야 합니다. 증오로는 결코 증오를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뿌리임을 깨달아 전쟁이 종식되고, 굶주림과 공포가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각기 다른 빛깔의 모래가 모여 하나의 정토를 이루는 만다라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만다라 세상을 꿈꿉니다. 너와 내가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공생(共生)의 화원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이 나를 밝히고 이웃을 깨우며, 마침내 온 우주를 평화의 향기로 채우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세상 밝히는 힘, 마음에 있다

운경 상보 대종사
태고종 종정



삼계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 국민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고자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든 중생들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서로를 해치고 다투는 세상 속에서 자비와 화합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출현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일깨우는 대자대비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메말라 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은 인류의 탐욕이 불러온 어두운 그림자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외로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로 인해 미움의 말이 넘쳐나고, 작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대립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마저 잃어가는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힘도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가정을 밝히고,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한 사람의 수행정진이 세상을 맑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하략〉

화합, 불교 지탱하는 근본

지성 대종사
불교총지종 종령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이어지며 화합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칠불퇴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예의, 법도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정신은 불교교단인 승가에도 이어져 '화합승'이라는 전통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화합은 시대를 넘어 불교를 지탱하는 근본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생명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주지 혜일 종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